

미국인 흡연·출산을 줄고 비만·당뇨병 급증

미국인이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돈은 엄청나다. 미국인의 평균수명이 77세를 넘어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가 최근 발표한 연례 국민건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은 2001년 기준으로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총 1조4천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의 건강 투자비는 매 해 늘어나 지난 1980년대이후 매년 평균 11%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투자비가 늘어난 만큼 평균 수명도 길어져 2001년 현재 미국인 평균 수명은 77.2세를 기록, 지난 1950년 평균수명 68.2세에 비해 9년이 늘어났다.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도 지난 1997년 36%에서 꾸준히 줄어 2001년에는 29%로 감소했으며 10대 출산율도 1천명당 45명을 기록해 지금까지 6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명이 늘고 청소년 흡연율과 출산율이 줄어든 반면 현대병으로 일컬어지는 비만과 당뇨병 등은 급증하고 있어 오래 사는 만큼 상당수 사람들이 과체중과 당뇨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 통계에 따르면 특히 어린이 비만의 경우, 지난 1970년대 전체 어린이의 7%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에 이르러 15%로 배가 되었고 이는 성인 남녀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당뇨의 경우, 지난 1997년 미국 성인 전체의 5.3%에 머물렀던 당뇨병 환자가 2002년에는 전체 성인 남녀의 6.5%로 증가했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45세 이상의 미국인 환자중 무려 22%가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국립보건통계센터측이 전했다.

국립보건통계센터 관계자는 '과체중 비만과 당뇨는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어린이와 성인의 비만추세가 계속되는 한 당뇨병 환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뇨병 산모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은 심혈관성 결함의 위험이 증가



영국에서 발표된 최근의 한 보고에 따르면 당뇨병을 가진 산모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은 심혈관성 기형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한다.

박사는 보고에서 선천성 심혈관 기형은 가장 흔한 출생시 결함 그룹을 형성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산모의 당뇨병은 심혈관계에 기형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계 결함의 한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당뇨병 산모들에게서 생존한 채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인구집단 기반의 전향적 연구는 이전에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렌 박사가 이끄는 연구자들은 당뇨병을 갖지 않은 산모들과 비교하여 당뇨병을 가진 산모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구조적 심혈관성 기형의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해 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집단에는 1995~2000년 사이에 시행된 영국북부지역 건강조사에 포함된 출생아 192,618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중 192,009명의 아기들은 당뇨병이 없는 산모들에게서 태어났고, 609명은 당뇨병 산모들에게서 태어났다.

연구집단 내에서 보고된 심혈관 결함들에 대한 기록 조사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당뇨병 산모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이 심혈관 결함의 위험이 5배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심혈관 기형의 발생률은 당뇨병이 없는 산모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서는 0.74% (192,009명 중 1417명)였음에 비해 당뇨병 산

모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서는 3.6% (609명 중 22명)였다. 연구자들은 당뇨병 산모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 집단에서의 심혈관 결함들을 조사하였을 때, 대동맥 전위증, 삼첨판 폐쇄증, 그리고 동맥간의 존재가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한 3배나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렌 박사는 “우리의 당뇨병 산모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인구집단 기반의 전향적 연구는 심혈관 기형 위험의 증가와 일부 특정 기형의 위험의 증가가 이 집단에 존재함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결론지었다. 연구자들은 당뇨병을 가진 모든 산모들은 전문의에 의한 태아 심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권고 사항들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한달에 한번 반가운 「당뇨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